

국어 파생접미사의 통사적 성격에 대하여

구 본 관

1. 문제의 제기

국어는 언어 유형론적으로 교착어에 속한다고 알려져 왔다. 교착어는 굴절어나 고립어 등과 달리 접미사가 발달된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국어의 효과적인 기술을 위해서는 접미사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런 관점에서 국어의 접미사(특히 파생접미사)의 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 파생접미사에 대한 논의는 무수하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파생접미사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파생접미사의 선정 기준과 목록 작성, 개별 접미사의 의미 내지 기능 등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파생접미사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이러한 물음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국어의 파생접미사의 성격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거나 적어도 논자들끼리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파생접미사란 무엇인가? 파생접미사의 통사적인 성격에 관심을 갖는 우리로서는 다음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파생접미사가 새로운 어휘를 만드느냐의 문제이다. 파생접미사는 형태론적인 의존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조사, 굴절어미 등과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다만 이러한 의존형식과는 달리 파생접미사는 새로운 어휘를 만든다는 점이 지

적되어 왔다. 둘째, 통사적인 과정과 구별되는 조어만을 위한 기제(본고에서는 파생에 한정)가 존재하느냐의 문제이다. 구조주의적인 관점 즉, 분석적인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단어의 분석을 통해 단어의 조어규칙에 접근하므로 조어규칙은 통사규칙과 쉽게 구별되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이루어진 단어의 분석을 위한 기제이지 공시적인 단어 형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더이상 생산적이지 않은 조어 방식을 제외하고 공시적인 단어의 형성만을 고려했을 때에도 통사적인 과정과 구별되는 조어만을 위한 규칙이 존재하는 지가 우리의 두번째 의문이다. 셋째, 통사적인 과정과 구별되는 조어만을 위한 규칙이 공시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과정이 '규칙'으로 이름 붙일 만큼 일반적인 기제인가 라는 문제이다. 우리는 조어과정과 통사과정과는 달리 예외나 빈칸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 공시적인 조어과정도 예외와 빈칸을 보일 것인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우리의 논의를 위해 문제가 되는 파생접미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제시된 접미사의 목록은 주로 고영근(1973)에서 가져 온 것이다.

- (1) 조사 또는 어미로 볼 수 있는 예들(다음의 예에서의 '-까지, -대로, -만큼, -나마, -에서, -게, -어, -아서, -ㄴ 양으로' 등)
 - 가. 여태까지, 마음대로, 요만큼, 이나마, 이에서
 - 나. 이렇게, 더불어, 따라서
 - 다. 그런 양으로, 붙작시면, 그런대로, 그런듯만듯
- (2) 어근으로 볼 수 있는 예들(다음의 예에서의 '-꽃, -심')
 - 가. 장산꽃
 - 나. 배심, 입심
- (3) 공시적인 분석이 어려운 예
 - 가. 슬프다
 - 나. 낚시
- (4) 피동파생접미사 '이, 히, 리, 기'
- (5) 구를 어기로 가지는 접미사

- 가. 체언에 부가되어 체언의 기능을 가지는 예 : '-군, -님, -생원, -가랑, -깨, -풀, -남짓, -짜리, -어치, -끼리, -들' 등
 나. 용언의 기능을 가지는 예 : '-답다, -이다, -같다' 등

2. 분석규칙 대 결합규칙

2.1 결합규칙(생성규칙)으로서의 조어규칙이 존재 여부

구조주의 시대에는 형태론의 한 분야로서의 조어법 연구는 단어의 생성이 아닌 분석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합성어나 파생어의 분석을 통하여 조어규칙에 접근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어규칙이 통사규칙과 구별되는 것은 자명하다. 앞에서 제시한 (1)의 예를 다시 가져오자.

(1) 조사 또는 어미로 볼 수 있는 예들

- 가. 여태까지, 마음대로, 요만큼, 이나마, 이에서 등
 나. 이렇게, 더불어, 따라서
 다. 그런양으로, 붙작시면, 그런대로, 그런듯만듯 등

(1가)의 예는 '체언+조사' 구성의 어휘화로 볼 수 있는 예들이다. 그러므로 이들 요소에서의 '까지, 대로, 만큼, 나마, 에서'등을 파생접미사로 보는 구조주의적인 태도는 결합의 관점에서 보면 달리 해석될 수 있다¹⁾. (1나)의 예는 '어간(어근)+어미' 구성의 어휘화²⁾이고 (1다)의 예는 '어간(어

- 1) 어미나 조사도 파생접미사로의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진실로'와 같은 예에서 '-로'가 조사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파생의 기능을 생산적으로 담당한다면 우리는 이를 파생접미사로 이해할 수도 있다. 졸고(1992)참조.
 2) 어휘화의 개념은 여러가지로 다르게 사용된다. 김성규(1987) 등에서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인 불규칙화를 어휘화로 규정했다. 본고에서는 어휘화를 어떤 언어단위가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근)+어미'에서 어미가 복합적인 구성을 가지는 예이다. 이들 예에서의 '-계, -어, -아서, -ㄴ양으로, -ㄴ작시면, -ㄴ대로, -ㄴ듯만듯' 등의 예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파생접미사로 보기 어렵다. (1)의 예에서의 어휘들은 파생규칙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통사과정에 의해 형성된 통사적인 구성이 어휘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들 예에서 우리는 조어규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해 왔던 어휘의 일부는 통사규칙에 의한 것임을 주목할 수 있다.

구조주의적인 분석의 관점에 의해 파생과정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결합의 관점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또 다른 예들을 우리는 이미 제시한 (2)에서 만날 수 있다.

(2) 어근으로 볼 수 있는 예들

가. 장산꽃(장산+꽃)

나. 배심(배+심), 입심(입+심)

이들 예에서 '꽃, 심' 등의 예는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파생접미사로 분류된 것이다. 그러한 분류는 '꽃, 심'이 공시적으로 자립성이 약하다는 데에 기인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들 어휘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의 공시적인 쓰임에 의존하여 파생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어휘가 형성될 당시의 결합을 고려하면 '체언+체언'의 관형구성 즉, 통사적인 구성이 어휘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파생어의 형성을 분석이 아니라 결합의 과정에서 살펴보게 되면 많은 예들이 통사적인 과정에서 형성된 구성의 어휘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영근(1973)에서 제시된 접미사를 모두 검토하면 (1), (2)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구성이 아주 많다. 물론, 파생 내지 합성의 과정 중에서 통사적인 과정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예들도 존재하므로 모든 파생이나 합성의 조어과정을 통사과정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더 자세한 논의는 3장에서 이루어진다. 본 절에서는 우리가 조어규칙에 의한 형성으로 다룬 예들 중에 일부는 통사적인 과정의 어휘화로 보아야 함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2.2 모어화자의 분석적 직관이 결합과 다른 경우

우리는 파생어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 어휘의 형성 내지 결합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파생어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공시적인 쓰임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파생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공시적인 쓰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형성은 통시적인 결과이고 화자는 그 결합과정을 모두 알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복합적인 구성의 어휘에 대해서 분석하려 하며 분석을 통해 어휘요소를 추출하여 새로운 발화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화자의 공시적인 분석은 어휘요소의 공시적인 쓰임에 의존할 것이다. 좋은 문법은 화자의 이러한 직관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3)의 예를 가져오자.

(3) 공시적인 분석이 문제가 되는 예

가. 슬프다, 아프다 류

나. 낯시 류

(3가)의 ‘슬프다’ 류는 공시적으로는 파생접사를 분석해 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어휘의 형성을 고려하면 ‘**슬+브-**’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어휘를 형성하고 있는 ‘**슬-**’과 ‘**-브-**’는 공시적으로는 둘 다 쓰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화자의 공시적인 직관은 이들 어휘를 ‘**슬+프-**’, ‘**아+프-**’로 분석하게 할 지도 모른다. 이처럼 화자의 직관은 그 어휘의 결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휘의 형성(결합)을 중시하므로 화자의 공시적인 직관을 고려한 이런 분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어휘의 경우 ‘**슬+프-**’, ‘**아+프-**’로의 분석은 이들 어휘의 구성요소 각각이 공시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화자는 이들 요소를 새로운 발화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 결합을 고려한 우리의 분석이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3나)의 ‘낯시’는 화자의 직관은 ‘**낯+시**’로의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한 분석은 공시적으로 ‘**낯-**’이 존재함으로써 강화된다. 그러나 이 어휘의 결합은 ‘**낯- + 이**’임이 명확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러한 어휘의 분석에 고심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낯+이**’의 분석을 따르기로 한다. 그것은

분석보다는 결합을 고려하려는 우리의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산적인 파생과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3. 단어어기 대 구어기

김창섭(1984)에서 ‘답-’의 어기가 단어가 아니라 구임이 주목되면서 국어 파생접미사류 중에서 구를 어기로 가지는 부류가 있음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임홍빈(1989)에서는 이들 접사에 의한 연결을 통사적 파생으로 보아 어휘적인 파생과 구별하려 했으며, 양정호(1991)에서는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접사들을 파생이 아니라 굴절의 범주로 분류하려 했다. 고창수(1986)의 통사적 접미사도 동일한 관점에서의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국어의 교착어적인 속성에 주목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국어의 파생접미사가 조어과정에 관여할뿐 아니라 통사과정에 관여한다고도 볼 수 있음이 주목되었다. 이제 고영근(1973)에서 제시된 파생접미사 중에서 구를 어기로 가지는 접미사를 세밀하게 검토해 보자.

문제가 되는 접미사의 목록

1. -가(哥) 2. -가(家) 3. -가(價) 4. -가(歌) 5. -가랑 6. -가마리
7. -가웃/아웃 8. -갈2 9. -감태기 10. -강 11. -같다 12. -개 13. -깨 14. -거리 15. -거리다 16. -껏 17. -께 18. -결 19. -경 20. -꿀
21. -공 22. -교 23. -꾸러기 24. -군 25. -군2 26. -긋다/긋다
27. -권 28. -그리다 29. -금 30. -기 31. -기3 32. -끼리 33. -남짓
34. -내 35. -넉넉 36. -네 37. -노릇 38. -님 39. -답다/땀다 40. 당하다
41. -대 42. -대다 43. -도 44. -되다 45. -되다2 46. -들
47. -들이 48. -(으)ㅁ 49. -마 50. -마님 51. -맞다 52. -빠듯 53. -바람
54. -발다 55. -빨 56. -분 57. -분지 58. -생 59. -생원 60. -서방
61. -성2 62. -세 63. -스럽다 64. -씨 65. -시키다 66. -씩
67. -약 68. -양 69. -어치 70. -없다 71. -여 72. -용 73. -원 74. -

이 75. -짜리 76. -째 77. -적 78. -절지 79. -정께 80. -중 81. -꿈
82. -지기 83. -지다 84. -지다2 85. -질 86. -차 87. -차2 88. -치
89. -치기 90. -팁 91. -티 92. -포 93. -히다 94. -허(-가2, -가3, -
가4는 고영근(1973)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3.1 대상성을 가지는 접미사

- 1) 성이나 이름, 신분을 나타내는 말뒤에 붙어 사람을 지칭하는 것들
1. -가2 2. -가3 21. -공 24. -군 25. -군2 38. -님 49. -마 50.
-마님 51. 59. -생원 60. -서방 64. -씨 68. -양 72. -옹

이들은 대체로 성뒤에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는 성과 이름 뒤에 쓰인다. 특히 ‘님, 씨’의 경우 원래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나 성 뒤에 주로 쓰이다가 근래에 와서는 이름 뒤에도 쓰이게 되었다. 이들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김계곤(1969)에서는 의존명사로 다루기도 했다. 위의 예들 중에서 ‘가3(‘소설가’의 ‘가’)와 ‘군2(‘농사군’의 ‘군’)를 제외하면 대체로 단위성 의존명사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필자는 이들을 단위성 의존명사로 볼 것인지 다른 어떤 의존명사로 볼 것인지는 더 고려할 필요를 느낀다. 이들 접미사류는 어기로 성이나 이름을 가지므로 이들 접미사류의 어기를 단어어기 혹은 구어기로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파생 접미사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들 어형들은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내는 파생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2) 체언이나 체언 상당의 구에 붙어 단위를 나타내는 것들
22. -교 27. -권 29. -금 56. -분 57. -분지 61. -성2 62. 세
73. -원 78. -절지 86. -차 87. -차2

위의 예들도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파생력이 없음은 물론이다. 이들 역시 통사적인 특성 면에서는 단위성 의존명사와 유사하다.

- 3) 용량이나 단위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
 5. -가량 7. -가웃/아웃 13. -개 17. -께 10. -강 16. -껏
 19. -경 20. -꼴 33. -남짓 35. -넉넉 41. -대 43. -도 47. -
 들이 52. -빠듯 55. -뻔 66. -씩 67. -약 69. -어치 71. -여
 75. -짜리 76. -째 79. -정께 80. -중 81. -쑤 82. -치기 89. -
 치기 90. -탐 94. -허

위에서 예시된 것들은 선행하는 요소가 구인 경우가 많다(예를 들면 [한달]np+가량). 그러나 이들은 관형사형의 꾸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선행하는 요소가 제한적이다. 우리는 이들 역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파생력이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파생접미사가 아닐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들 중에서 '13. -개, 16. -껏, 55. -뻔' 등은 구가 아니라 주로 명사 어기에 붙으며 용량이나 단위를 나타내는 말에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예들과 구별된다. 이들은 전형적인 파생접미사의 특성에 좀더 가깝다.

- 4) 체언 뒤에 붙어 복수성을 나타내는 것들.
 32. -끼리 36. -네 46. -들

체언 뒤에 붙어 복수성을 나타내는 접미사에는 위에서 제시한 예 이외에도 '-회'가 있다. '-회'는 공시적으로 생산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논의하지 않는다.

'-끼리'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 (6) 가. *동물이 모인 끼리
 나. 무엇 끼리 노느냐?
 다. 끼리로 노는 것은 동물이다.
 라. 그것들 끼리 논다.
 마. [[우리 집에 있는 동물] 끼리]

(6)의 예는 임홍빈(1989)에서 가져온 것이다. (6가)가 불가능한 것은 '끼리'가 의존명사와 통사적인 구성에서 차이가 남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6마)의 예가 보여주듯이 끼리는 명사구 전체에 부속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보조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짐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 ‘끼리’와 위에서 논의한 ‘쫘’등을 보조사로 취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조사로 보기에는 대상성의 의미가 너무 강한 것 같다. (6나, 다)는 ‘끼리’가 어느정도 자립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계곤(1969)에서는 이러한 자립성에 근거하여 ‘끼리’를 의존명사로 다루기도 했다.

우리의 관심은 ‘끼리’가 보조사나 의존명사나 아니면 접미사나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우리는 ‘끼리’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파생력이 없으므로 전형적인 파생접미사의 범주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끼리’는 (6)의 여러 예에서 보여준 통사적인 특징을 지닌 의존형식이며 그러한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통사적인 과정(문장의 형성)에 참여하는 어휘부류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친다.

‘-네’의 용법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 ‘내’는 평칭의 복수 접미사 ‘들’에 대하여 존칭의 복수 접미사로 현대국어에서보다 널리 쓰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국어에서 ‘-네’의 쓰임은 그리 활발하지는 못하다.

(7) 가. 우리네야 무얼 알겠니?

나. 순이네가 온다. 김서방네가 왔다.

다. 어르신네께서는 안녕하십니까?

라. 복동이네 집에 가자.

(7가)의 용법은 ‘-들’의 용법과 그의 일치하는 듯하다. 물론 존칭의 의미는 없다. (7가)를 ‘우리야 무얼 알겠니?’와 비교하면 ‘-들’의 용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개체성의 의미가 드러난다. (7나, 다)의 ‘네’는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복수성은 파악되지 않는다. (7라)는 이와는 달리 어느 정도 복수성이 파악된다.

(7가, 다)의 용법으로는 이들은 공시적으로 통사적인 구성에 참여하기 어려운 듯하다. 그러나 (7나, 라)의 용법으로는 공시적으로 통사적인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7나, 라)의 용법으로서의 ‘네’는 의존형식으로서 어휘부에 존재하며 통사구성에 참여하는 부류에 소속시킨다.

‘-들’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 (8) 가.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나. 사람들이 왔다.

임흥빈(1978)에서는 국어의 명사를 ‘개체집합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들’이 ‘개체성’을 확립시켜 준다고 보았다. (8가)의 ‘사람’은 류개념을 지니지만 (8나)의 ‘사람들’은 개체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남순(1982)에서는 ‘들’이 연결되면 그 상태나 동작의 주체가 복수대상임을 나타내 준다고 했다.

‘들’에 대한 논의에 앞서, 더욱 근본적인 물음은 국어에 ‘복수성’의 문법범주가 존재하느냐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 영어와 국어의 예를 비교해보자.

- (9) 가. There are many trees.
나. 나무가 많다.(나무가 많이 있다.)
다. 나무들이 많다.(나무들이 많이 있다.)

- (10) 가. There are two books on the table.
나. *책상 위에 두책이 있다.

영어의 단수와 복수의 개념은 굴절적인 것으로 명사의 속성에 의존하여 복수접미사의 부가가 결정된다. 그러나 국어의 경우 (9나)의 표현이 일반적임에 반해 (9다)는 ‘개체성’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강할 때 가능한 표현으로서 국어에 흔히 쓰이는 표현은 아닌 듯하다. 국어의 복수접미사는 (10가, 나)의 비교를 통해 임흥빈(1989)에서 논의했듯이 형태론적인 과정이 아니라 통사론적인 과정과 관련된다. 영어와 달리 형태론적인 과정으로서의 복수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복수를 나타내는 문법범주가 국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굴절어미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접사에 의한 것이든 복수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 언어에 존재하기만 하면 그 언어가 복수범주를 가진 것으로 보는 입장을 따르기 때문이다³⁾.

3) 국어의 복수성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들, 네, 회, 끼리’와 같은 의존형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중첩, 보충법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제 ‘들’의 구체적인 쓰임을 알아보자.

- (11) 가. [그들은 밥을들 많이들 먹었다]들
 나. 나는 [[[성장기에 나에게 좋은 말을 해 준 사람]들]을] 잊지 못 한다.
 다. [[그 때 나를 보살펴 준] [사람들]이] 고맙다.
 라. 그들은 [매우 열심히]들 일한다.
 마. 책상 위에는 [[책, 연필, 지우개]들]이 있다.

(11)의 예들은 임흥빈(1989)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11나)의 예는 ‘들’이 선행어기로서 명사가 아니라 명사구울 가짐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들’을 보조사로 보기도 했다(김계곤, 1969). (11라)의 예는 잘 알려진 바처럼 ‘들’이 명사가 아니라 부사나 부사구에 후행하는 쓰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고영근(1972)에서는 이런 용법의 ‘들’을 명사에 후행하는 것과 구별하여 보조사로 다루었다. (11마)의 예는 학교문법에서 의존명사로 다루고 있는데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른 의존명사와는 다르다.

본고에서의 관심은 ‘들’이 의존명사나 보조사나 혹은 접미사나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우리는 (11)에서 나타난 어떤 용법의 들도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는 파생력이 없음에 주목하여 ‘들’을 전형적인 파생접미사에서 제외하고 공시적으로 통사구성에 직접 참여하는 의존형식의 하나로 파악한다. 그리고 통사적인 구성에 참여할 때의 제약이나 방식 등은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5)대상성이 강해서 의존명사 내지 어근으로 파악되는 것들

20. -풀 53. -바람 91. -티 37. -노릇 6. -가마리 9. -감태기
 8. -갈2 18. -결 30. -기 12. -개 23. -꾸러기 34. -내 3. -가4
 4. -가5 43. -도 58. -생

다음의 예를 보자.

- (12) 가. 십 원꼴
 나. [세번에 한 번] 꼴
 다. 그가 하는 꼴을 보아라.
 라. 그것봐라. 꼴 좋다.

(12다, 라)의 용법은 자립명사이므로 제외한다면 우리는 (12가, 나)의 용법에 주목할 수 있다. (12가)의 ‘십 원꼴’은 실상은 ‘한 개에 십 원꼴’의 용법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꼴’이 구에 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2가)와 (12나)는 동일한 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에 대해서 김계곤(1969)에서는 의존명사로 보았고 Martin(1968)에서는 ‘post-n’으로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예에 대해서 역시 ‘꼴’이 새로운 어휘의 파생 기능이 없음을 지적하고 어휘부에 존재하는 의존형식의 하나로 파악한다.

- (13) 가. 동저고리바람, 속웃바람
 나. 그가 오는 바람에 놀랐다.

- (14) 가. 시골티, 양반티
 나. 그는 꼭 없는 티를 낸다. 그는 외국 갔다운 티를 낸다.

(13)과 (14)의 예들도 큰사전 등에서 의존명사로 보기도 했다. 이들 역시 선행요소와 결합력이 강하여 전체로서 복합어가 되기도 하지만 공시적으로 통사구성에 참여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파생접미사라기보다 어휘부에서 존재하는 일종의 의존형식으로 파악된다.

‘37. -노릇, 6. -가마리, 9. -감태기’ 등은 용법에 제한이 있어 공시적으로 어휘부에서 의존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을 지 다소 의문스럽다. 이들은 분석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18. -결, 12. -개, 30. -기’ 등은 공시적으로 통사구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23. -꾸러기’는 현대국어에서는 자립성을 얻은 듯이 보이기도 한다(‘꾸러기 대행진’ 등의 예가 텔레비전 등의 제목으로 쓰이기도 하고 ‘꾸러기들의 합창’이라는 표현도 가능).

- (15) 가. 적정가, 최고가
 나. 그가 부르는 가격으로 사 오너라.
 다. * 그가 부르는 가로 사 오너라
- (16) 가. 겨우내, 여름내
 나. *[일 년]내(일년 내내의 뜻으로는 사용되지 못함)

(15)의 ‘가(價)’는 ‘가격(價格)’의 의 줄임이고 (16)의 ‘내’는 ‘내내’의 줄임이다. 그런데 줄여진 형태로는 자립성을 가지지 않고 의존적으로만 쓰인다. (15가)의 용법은 공시적으로 통사적인 구성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듯하다. 그러나 (16가)의 용법은 공시적으로는 통사구성에 참여하지 않는 듯하다.

‘58. -생, -43. -도’는 대상성의 의미가 강하며 공시적으로 통사구성에 참여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어휘부에서 일종의 의존형식으로 파악된다.

3.2 서술성을 가지는 접미사

- 1) 피, 사동과 관계되는 것들
 가. -기다, -이다, -히다, -구다, -우다, -추다
 나. -지다
 다. -당하다, -되다, -받다, -시키다

우리는 피사동 접미사의 논의에 앞서 국어에서 피동이나 사동의 문법 범주가 인정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어에서 피동이나 사동의 표현은 첫째, ‘이, 히, 리, 기’ 등의 접사에 의한 피동사로 표현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어 지다’나 ‘-게 하다’ 등에 의한 방법이 있다. 셋째, ‘당하다, 되다, 받다’나 ‘시키다’에 의한 우설적인 표현방법이 있다. 어떤 서술어가 어떤 형식을 취하는 지는 방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 (나), (다)의 형식은 서로 어느 정도는 상보적인 듯하다⁴⁾. 지금까지의 피동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피동형식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일부만을 인정하

4) 예를 들어 경주방언의 경우는 증양어에 비해 (가)의 형식이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듯하다. 줄고(1990)에서는 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

기도 하는 등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일단 이런 모든 형식을 피동범주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형식이 파생접미사의 특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논의될 수 있을 지 검토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대로 고영근(1973)에서는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를 동일한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접미사가 형태상 유사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접미사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피동과 사동은 다른 문법 범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논의에서는 사동을 굳이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피동만을 다룬다.

본고에서는 '이, 히, 리, 기'⁵⁾ 피동접미사를 분석적인 입장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어휘부에서의 해석규칙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접미사가 공시적으로는 생산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김성규(1987)에서는 중앙방언의 피동접미사가 생산적이지 못함을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논의한 바 있다. 졸고(1990)에서는 경주방언을 대상으로 이들 접미사가 공시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중앙방언의 경우 공시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들 접미사는 공시적으로는 어휘부에서 새로운 통사과정의 어휘삽입을 위한 입력부가 되지 못한다. 어휘삽입의 과정에는 이들 접미사가 부가된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다.

고창수(1986)에서는 접미사를 어휘적인 접미사와 통사적인 접미사로 나누면서 피동파생의 '이, 히, 리, 기'를 통사적 접미사에 소속시켰다. 고창수(1986)에서의 논의에서 이들 접미사가 통사적인 접미사로 분류된 것은 이들 접미사가 문법적인 범주를 바꾼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통사적인 접미사가 어휘삽입 이후에 여기에 부가된다고 한다면 공시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이들 접미사는 통사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접미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고창수(1986)에서 공시적인 생산성이 없는 피동의 접미사를 통사적 파생으로 보는 것은 어휘부에서의 어휘삽입의 과정과 통사부에서의 문장생성의 과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해석적인 관점을 취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어 지다'에 의한 피동은 공시적으로도 매우 생산적인 것으로 보인다

5) 고영근(1973)의 목록에서는 피동접미사 중에서 '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그러므로 우리는 '-어 지다'를 통사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접미사에 소속시켰다. '어 지다'가 접미사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 지다'에 의해 만들어진 피동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어 지다'에 의한 파생형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것은 이 형식에 의해 만들어진 형이 단어가 아니라 구의 형식을 띠기 쉽다는 점 때문인 듯하다. 그러므로 피동표현에 쓰인 후에 이 형식은 다시 해체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생산력이 높은 형식은 역설적으로 어휘화가 잘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어휘의 생산이란 통사적인 과정에 의해 형성된 표현의 굳어져 어휘부에 등재되는 현상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어 지다'가 파생접미사이냐의 여부에 있지 않다. 단지 우리는 이러한 형식이 의존적인 형식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공식적으로 문장생성에 활발하게 참여하므로 어휘부에 의존형식으로서 등재하면 되는 것이다.

(다)의 예는 어휘에 의한 우설적인 방식의 피동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어휘들이다. 이들 역시 논자에 따라 접미사로 다루기도 했으나 그 어휘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절당하다, 걱정되다, 용서받다' 등의 예가 형성되는 결합과정을 고려하면 이들을 접미사에 의한 파생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 이들 형식들이 자립 용언으로 쓰일 때와 아무런 의미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형식이 접미사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들 형식에 의해 만들어진 '거절당하다, 걱정되다, 용서받다' 등을 합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어휘부에 의존형식으로서 '-당하다, -되다, -받다'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2) 자립용언의 의존형식화

26. -긋다 70. -없다

'긋다'는 '심술긋다'와 같은 예에 쓰이는데 이 어형은 공식적으로 자립성을 띠고 쓰이는 경우는 '긋은 날씨'에서와 같이 '긋은'의 형식으로 쓰일 때 뿐이다. 그러므로 '-긋다'는 공식적으로 통사적인 구성에 참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형식은 어휘부에서 의존형식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석 규칙에서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없다’의 접미사적인 쓰임은 두가지의 의미로 쓰인다. ‘맥없다, 실없다’의 경우에는 ‘無’의 의미로 쓰이지만 ‘시름없다’의 경우에는 오히려 ‘有’의 의미로 쓰인다. 우리는 ‘시름없다’와 같은 예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없다’가 ‘無’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명사+(이/가)+없다’의 통사적인 과정의 어휘화로 보려한다. 그러므로 어휘부에 의존형식으로서 ‘-없다’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5. -거리다 28. -그리다 42. -대다

이들 형식들은 공시적으로는 자립적인 용법이 없다. 그러나 첩어성의 의성 및 의태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통사적인 구성이 가능하다. ‘살랑살랑거리다’, ‘알짹알짹 대다’를 ‘부사+서술어’의 통사적인 구성으로 본다면 이들도 어느 정도는 자립성을 가지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 형식이 어휘부에 등재 될 때는 첩어성을 상실하고 ‘살랑거리다’와 같은 형식으로 등재된다. 우리는 이러한 형식에 대해서도 ‘부사+서술어’로 볼 수 있지만 ‘살랑’이 부사로 쓰이는 법이 없으므로 ‘살랑거리다’는 일단 어휘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살랑거리다’를 ‘살랑살랑거리다’의 통사적인 구성의 어휘화로 보려면 왜 통사적인 구성이 어휘화될 때 생략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이들 예를 통사구성과 조어구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살랑거리다’에 대해서 통사구성의 어휘화가 아닌 단어형성의 기제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는데 공시적인 현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생산적이고 규칙적인 조어규칙은 없다는 우리의 가설에 벗어나는 예로 볼 수도 있다. ‘의성 및 의태부사 + 서술어’구성이 통사적인 과정인지 조어과정인지의 논의는 4 장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거리다, 대다, 그리다’는 공시적으로 어휘부에 존재하며 일종의 의존적인 형식으로서 통사적인 구성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형식이 통사 구성에 참여할 때의 제약은 첩어성 의성 및 의태부사에 후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11. -갈다 39. -답다 63. -스럽다

‘-답다2’에 대해서는 김창섭(1984, 1992) 등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7) 가. 저 인형은 사람같다.
 나. [저 인형은 [살아 있는 사람]같다]
 다. 저 인형은 사람과 같다.

- (18) 가. 철수와 나는 나이가 같다.
 나. 내 나이는 철수와 같다.

고영근(1973)에서는 ‘감쪽같다, 굴왕신같다’ 등의 예문에서의 ‘같다’를 접미사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는 (18)에서의 ‘같다’의 용법을 자립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7가, 나)에서의 용법은 ‘같다’가 명사나 명사구를 선행요소로 하는 의존형식으로서의 용법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17다)에서 ‘와/과’의 생략에 따라 형성된 형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17가, 나)에서와 (17다)에서의 ‘같다’는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는 듯하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주목하여 (17가, 나)에서의 ‘같다’를 의존형식의 일종으로서 어휘부에 존재하며 공식적으로 통사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학교문법에서 서술격조사로 부르는 ‘이다’역시 이런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고창수(1986)). 김창섭(1992)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답다2, 이다, 같다’를 동일한 부류로 보아 통사적인 과정으로 다루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스럽다’는 이와는 다소 다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9) 가.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다.
 나. 오늘은 [[[그가 음]직]스럽다]

(19가)의 용법은 ‘스럽다’가 명사에 후행하는 것으로서 ‘스럽’의 전형적인 예이다. (19나)의 예는 임홍빈(1989)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미 예문 (2)에서 제시한 바가 있다. 본고에서는 (19나)와 같은 예가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럽다’는 형태론적으로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같다, 답다2, 이다’와 마찬가지로이나 선행요소로서 구가 아니라 단어만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생산성이 있는 접미사로 볼 수 있는 ‘스럽다’가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과정을 통사적인 과정으로 보고 ‘답다2’ 류와의 차이는 어기의 조건만 다르다고 볼 수도 있고 통사과정과는 다른 조어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자세한 논의는 4 장에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논의한 접미사류 이외에도 우리의 관점에서 의존형식으로 공시적인 통사과정에 참여하는 예는 더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93.-하다’를 논의해야 할 것이며 부사화 접미사 ‘-이’, 체언에 부가되는 ‘-의’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⁶⁾. 동일한 관점에서 의존형식의 일종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학교문법에서 명사형어미로 다루는 ‘48. -(으)ㅁ, 30. -기’ 등도 같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접두사 ‘헛-’의 의미 작용 영역을 구로 파악한 김창섭(1992)의 논의도 이런 관점에서 흥미롭다. 본고에서는 이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4. 통사과정 대 조어과정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조어과정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논의되었던 많은 파생어들이 사실은 통사과정에 의한 통사적인 구성의 어휘화로 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하여 2 장에서는 결합의 관점에서 보면, 파생과정으로 파악되었던 많은 경우가 통사과정의 어휘화임을 밝혔다. 그리하여 이들 과정에서 나타나는 접미사를 우리는 더이상 파생접미사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3 장에서의 논의는 파생접미사로 알려진 것들의 일부는 구를 어기로 가지며 우리는 이들 의존 형식들을 통사과정에 의해 부가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의 이러한 관점을 극단으로 물고가면 분석이 아니라 결합을 고려한 논의에서 공시적으로 규칙으로 부를 만한 조어과정이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나아가게 된다. 과연 공시적이고 규칙적인 조어과정이 통사과정과 달리 존재하는가?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는

6) 이들에 대한 논의는 김창섭(1992) 등에 자세히 이루어져 있다.

몇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것이다.

우선, 생산성이 있는 접미사이면서 구가 아니라 단어를 어기로 가지는 ‘스럽다’류를 검토해 보자. 우리는 ‘스럽다’가 구에 부가되는 용법이 화자에 따라서는 수용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높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화자는 ‘스럽다’에 의해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것이 아주 쉽다. 화자가 ‘스럽다’에 의해 ‘농촌스럽다’라는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이 어휘의 발화는 조어과정에 의해 ‘농촌스럽-’이 만들어진 후에 어휘삽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사과정으로 포착할 수도 있다. 즉, 어휘부에서는 ‘농촌’과 ‘스럽-’이 존재하고 어휘삽입의 단계에서 이들이 결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스럽-’은 ‘답다2’류 처럼 형태론적 의존성을 가지는 어휘부류로서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으며 ‘답다2’류와는 달리 여기가 단어에 한정된다는 제약을 가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김성규(1987)에서 밝혔듯이 생산성이 있는 파생 접미사의 결합시에 나타나는 음운현상이 굴절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논의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이런 관점을 따르게 되면 공시적인 조어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운 어휘는 통사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통사구성의 어휘화일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공시적인 조어과정의 존재를 여부를 밝히기 위해 우리가 검토 할 것은 3 장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가 있는 ‘거리다’ 류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들 접미사류는 통사적인 구성에 참여할 때는 주로 첩어와 결합하지만 어휘부에는 첩어성을 상실한 채로 등재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조어과정과 통사과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 ‘덜컹거리다, 꿈틀거리다’와 ‘덜컹덜컹 거리다, 꿈틀꿈틀 거리다’가 통사과정상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즉, ‘덜컹거리다’ 류에서의 ‘거리다’는 형태론적으로 의존성을 가진 어휘로서 통사과정에는 첩어성을 가지지 않는 부류와 결합하고 이들 통사적인 구성은 어휘부에 등재되기도 하는데, ‘덜컹덜컹거리다’류에서의 ‘거리다’는 형태론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결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첩어성을 가지는 부사와 결합하고 이러한 구성의 통사과정에 의한 통사구성은 어휘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들 통사구성의 어휘

화를 막는 것은 이미 ‘덜컹거리다’류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저지(blocking)의 기제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다소 극단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거리다’류의 어휘의 역사적인 변천에서 통사적인 구성과 조어과정의 차이를 설명할 수도 있다. 즉, 용언의 어간끼리의 결합인 ‘높푸르다’류가 이전 단계의 국어에서는 통사적인 결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듯이 ‘거리다’는 통사과정에서 비첩어성의 부사류와 결합하다 후대로 오면서 첩어성의 부사와 결합하게 된 것으로 가정해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덜컹거리다’류는 공시적인 과정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 옳다면 ‘거리다’류의 존재가 통사적인 과정과 구별되는 공시적인 조어과정의 존재에 대한 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덜컹거리다’류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공시적인 조어규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시적이고 규칙적인 조어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가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는 통사과정에 의한 통사구성이 어휘화된 것으로 보이는 예일지라도 비통사적인 과정일 수도 있음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창섭(1992)에서는 ‘가득하다, 가만하다’와 같은 형용사의 내부구조를 분석하면서 ‘가득, 가만’과 같은 부사류가 형용사를 수식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는 통사적인 과정의 어휘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생어의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통사적인 과정과 비통사적인 과정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에는 선택제약이나 어휘적인 특성이 정밀하게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공시적인 통사과정과 다른 구성을 가지는 어휘의 존재가 공시적이고 규칙적인 조어과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우리의 가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어휘는 이전 시기에서의 통사과정의 산물이거나 불규칙적인 과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규칙 대 선호성(perference)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공시적이고 규칙적인 조어과정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세운 바 있다. 그리하여 공시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조어과정은 통사과정과 다르지 않으며 결국 통사구성의 어휘화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조어과정을 통사과정과 동일한 기제로 파악하려는 우리의 가설과는 별도로 통사과정과는 일치하지 않는 많은 방식의 조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용언어간끼리의 비통사적인 결합, 용언어간과 명사의 결합(예를 들면 ‘먹거리’), 유추, 역형성(예를 들면, ‘점잔하다’에서 ‘점잔’이 형성) 등의 방법에 의한 조어가 그러하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조어현상은 규칙적인 조어가 아니므로 공시적으로 규칙적인 조어방식의 존재를 부정하는 우리의 가설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는 통사적인 과정에 의해 구가 어휘화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 (20) 가. 작은집, 큰형, 큰아버지
 나. 덮어놓고, 부라부라
 다. -하는 통에, -하는 바람에

(20가)의 예는 통사적인 구가 하나의 어휘로 등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나)는 구나 문장이 어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가, 나)는 통사과정에 의한 구나 문장이 명사나 부사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이는 명사와 부사가 개방부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다)는 통사적인 구가 연결어미의 기능을 가지고 어휘화됨을 보여준다. 이들 예는 하나의 단어는 아니지만 통사 단위상 하나이므로 우리의 관점에서 어휘부에서 단일한 등재단위이다(졸고(1992) 참조). 우리는 이들 예를 제외하고도 속담과 같은 문장이 어휘부에서 등재소로 어휘화됨을 알고 있다.

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어는 불규칙적인 비통사적인 과정이든 통사과정의 어휘화이든 규칙이라 부를 만큼 체계적이지 않다. 그리하여 통사적인 패러다임이 대체적으로 빈칸이 없음에 반해 조어과정은 많은 우연 내지 필연적인 빈칸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어떤 방식의 조어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뿐 그 조어방식에 적합한 어휘가 반드시 형성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많은 불규칙적인 조어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대조차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시적인 조어

규칙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우리의 관점에서 어떤 구성이 다른 어떤 구성보다 새로운 어휘로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공식적인 조어를 ‘규칙’보다는 ‘선호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Dressler(1988), Bybee(1985, 1988) 등의 자연형태론에서는 어휘화의 과정을 선호성의 관점에서 파악한다⁷⁾. 이런 관점에서는 단어나 어근을 어기로 가지는 파생형이 구를 어기로 가지는 파생형보다 무표적이므로 쉽게 어휘화 된다고 파악한다. 선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기의 음운, 형태, 의미적인 조건, 전체로서의 길이, 구성요소의 어휘강도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간략한 지적에 그친다.

6. 마무리

본고에서는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 파생접미사의 통사적인 특성을 주목함에 있어 국어의 조어과정(특히 파생접미사에 주목하여)이 통사과정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았다. 우리의 관점에 따르면 국어 파생접미사는 공식적으로는 모두 통사과정으로 파악된다. 이들 어휘류가 가지는 형태통사상의 특질은 어휘부에서 나타난다. 이런 관점에서 접미사는 국어 어휘부류의 분류 상, 공통되는 특질을 가지고 묶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어는 본질적으로 통사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리하여 공식적이고 규칙적인 조어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많은 불규칙적인 조어방식이 존재한다. 우리는 조어에 대해 규칙이 아니라 선호성의 관점에서 파악했다. 우리가 국어 조어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어규칙이 있다’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다른 어떤 구조에 비해 선호성이 높다’는 진술일 것이다.

7) 자연형태론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유표성과 무표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나친 규칙중심의 이론을 피하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1972), 현대국어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1) - 확립기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논문집(인문 사회과학편) 18집(고영근 1989b에 실림).
- 고영근(1973), 현대국어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4) - 동요상황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 12(고영근 1989b에 실림).
- 고영근(1978), 형태소의 분석한계, 언어학 3(고영근 1989b에 실림).
- 고영근(1989a), 파생접사의 분석한계, 어학연구 25-1
- 고영근(1989b),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고영근(1992), 형태소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근수선생회갑기념논문집.
- 고창수(1986), 어간형성접미사의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학연구 7.
- 구본관(1990), 경주방언 피동형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00.
- 구본관(1992), 생성문법과 국어 조어법 연구 방법론, 주시경학보 9.
- 김계곤(1968), 현대국어 조어법(word-formation) 연구 - 앞가지에 의한 파생법 -, 논문집 3(인천교육대학).
- 김계곤(1969),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 뒷가지에 의한 파생법 -, 논문집 4(인천교육대학).
-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77.
- 김영석·이상억(1992), 현대형태론, 학연사
- 김창섭(1981), 현대국어 복합동사 연구, 국어연구 47.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답-', '-스럽-', '-롭-', '-하-'와 '-적-'의 경우, 진단학보 58.
- 김창섭(1992), 국어학회 발표 요지
- 송철의(1977), 파생어 형성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38.
- 송철의(1990),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홍빈(1982), 기술보다는 설명을 중시하는 형태론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학보 26.
- 임홍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 조남호(1988), 현대국어 파생접미사 연구, 국어연구 85.

- 하치근(1989), 국어 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 Anderson, S. R.(1988), *Inflection*, In Hammond M. and Noonan M. ed. *Theoretical Morphology*, Academic Press.
- Aroff, M.(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1.MIT Cambridge Massachusetts.
- Bybee, J.(1985), *Morphology*, Amsterdam: Benjamins.
- Dressler, W.(1985), *Morphology*, Ann Arbor: Karoma.
- Fabb, n.(1984), *Syntactic Affixation*, PhD dissertation, MIT.
- Fabb, n.(1988), *English suffixation is constrained only by selection restrictions*. NLLT 6.
- Chomsky, n.(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R. Jacobs and P. S. Rosenbaum ed.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 Grammar*, Ginn. Walthem, Massachusetts.
- Lees, R. B.(1960), *The Grammar of English Nominalization*, Mouton, The Hague.
- Lieber, R.(1981),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PhD dissertation MIT.
- Martin, S. E. et al.(1968), *New Korean English Dictionary*, Minjungseogwan.
- Nida, E.A.(1949),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Univ. of Michigan Publication in Linguistics 2, Ann Arbor.
- Scalise, s.(1984), *Generative Morphology*, Foris Publications(전상범 역 (1987), *생성형태론*, 한신문화사).
- Sciullo, A.M.D. and Williams, E.(1987), *On the Definition of Word*, Linguistic Inquiry Monographs 14, MIT Press.
- Spencer, A.(1991), *Morphologic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 Wolff, S. E.(1983), *Lexical Entries and Word Formation*, Phd Dissertation, Univ of New York.
- Wurzel, W. U.(1989), *Inflection Morphology and Naturalness*, Dordrecht: Reidel.